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길

안녕하세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2022년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각국 기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년 남짓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 199개 언론사 1만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5대 강령중 하나인 <국제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1966년 국제기자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기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 세계 언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세계기자대회가 어느덧 올해로 1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첫 행사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전 세계 언론인들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로 초청해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고 상호 친목의 장을 확장시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언론인들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개회사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불가피하게 3년째 온라인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각국의 상황과 고민을 공유하고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는 첫날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언론 불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정보’의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들여보고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서로 도입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날에는 각국의 우수한 언론 보도 사례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한 취지로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참가자들께서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비록 온라인상으로나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시는 만큼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해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여러분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